

바라밀현장

동국대 참사람봉사단

학습지도 등 각분야 활동

인연맺은 학생

꾸준히 찾아와 봉사

매년 1천여 학생 구슬땀

“할머니,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시원하 시죠?” “그럼, 어깨도 좀 주물러 줘, 비가 와서 그런지 온몸이 찻시어.”

22일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뻘 되는 대학생들에게 안마를 받고 있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주인공들은 동국대 참사람봉사단 지원 학생들, 배낭여행과 놀이공원, 어학연수 등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을 유혹(?)하는 일이 수없이 많지만, 이들은 봉사를 택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봉사활동을 해 본 친구들이 좋은 경험이었다고 추천해 줬어요. 방학이라고 마냥 한 가하게 보내기보다는 뭔가 뜻있는 일을 해 보고 싶어 신청했습니다.” 김형준(반도체학과 3) 씨는 같은 과 친구들과 함께 참사람봉사단 활동을 신청해, 옥수복지관이 운영하는 ‘선재 방과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경로식당 청소를 맡고 있는 문준



◀방학을 맞은 동국대 학생들이 참사람봉사단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에서 안마봉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참사랑, 참사람이 앞장섭니다

호(반도체학과 3) 씨는 “‘봉사’라고 하면 ‘나를 희생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거창하게 생각했는데 복지관 봉사활동을 통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며 “혼자 봉사활동을 하는 것보다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하면 지루하지 않고 추억거리도 만들 수 있어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한다.

현재 옥수복지관에는 30여 명의 참사람

봉사단 참가자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경로식당 청소, 학습지도, 유치부 수업보조, 진로 차트 작성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참사람봉사단을 통해 인연을 맺은 학생들이 몇 년씩 꾸준히 찾아와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복지관 관계자의 전언이다.

동국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 봤을 ‘참사람봉사단’은 봉사를 원하는 학생들과 도움이 손길을 필요로 하는 단체를 연결해 주는 곳으로, 서울과 경주 캠퍼스에 각각 봉사단을 두고 있다. 지난 1997년 6월 발족해 현재까지 학생은 물론 교직원까지 모두 3천 6백여 명의 봉사단원을 배출해냈다.

봉사단의 활동영역은 그야말로 ‘무한대’.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기도 하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나 도서관과 관공서의 컴퓨터 교육, 병원의 간병보조, 법률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중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전공을 살려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사람봉사단의 가장 큰 장점이다. 때문에 해마다 4차례 1천여 명이 이르는 학생들이 사회복지단체와 지역단체 등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봉사활동은 어떤 ‘의무’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의 작은 ‘사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봉사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처럼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할 일부터 시작됩니다.”라는 한 참가자의 후기는 참사람봉사단의 참 의미를 전해주기에 충분히 보였다. (02)2260-3049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경주캠퍼스 참사람봉사단



◀매년 해외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참사람 봉사단은 올해 스리랑카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14일 열린 봉사단 발대식 모습.

8월4일까지 스리랑카 의료봉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참사람봉사단은 최근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방 진료팀 10명, 양방 진료팀 11명, 봉사지원 3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20일부터 8월 4일까지 15일간 스리랑카 칼푸타라(Kalutara) 등의 수해지역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양·한방 내과, 침구과, 피부과, 부인과 무료진료를 실시

한다. 봉사단은 의료봉사활동 외에도 수해지역의 복구작업과 구호물품 전달 등의 활동도 하게 된다.

진대호 단장은 “세계화 시대를 맞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의 봉사정신 함양을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미얀마에서 처음 실시해 올해로 3번째를 맞는 해외의료봉사활동은 현지인들의 호응이 높아 올해 그 규모를 확대했다. (054)770-2048

“장애우와 함께 희망을 밝히세요”

청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성 스님)과 동양여자고등학교 자원봉사동아리 ‘꽃밭’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장봉혜림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2001년부터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해 안마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꽃밭’ 회원 10여 명은 방학을 맞아 장애인들로 구성된 그룹을 (공동생활가정)인 장봉혜림원을 찾아 1박 2일간 장애우들과 함께 생활하며 영화 관람

과 미술지도도 도와주는 봉사활동과 갯벌에서 다슬기와 조개를 캐는 생태체험을 함께 했다.

청담복지관 송민경 사회복지사는 “그동안 복지관과 연계해 안마봉사를 해 왔던 인연으로 복지시설을 방문하

동일여고 촛불봉사동아리

인천 장봉혜림원 찾아 봉사

들어 장애인이라는 편견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내년도에 봉사활동을 함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02) 806-1376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샤로테 조코 벡

평상심 구현하는 생활선 추구

샤로테 조코 벡(Charlotte Joko Beck)은 미국 샌디에고(San Diego) 등 여러 곳에 지원을 둔 평상심(Ordinary Mind) 선원의 원장이다. 그녀는 1960년대에 일본의 하쿰 야스타니 노사와 소엔 나카가와 노사의 지도아래 선을 공부했다. 1983년 그녀는 LA선원의 하쿠유 마에즈미 노사의 세 번째 제자가 되었다. 그녀는 샌디에고 선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한편 <생활선(Everyday Zen: Love And)>(1989)과 <살아있는 선(Nothing Special: Living Zen)>(1994)을 펴냈다.

“당신이 좌선할 때 존귀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살아있는 선(Nothing Special: Living Zen)에 매몰되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대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때면 잘 보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성냄, 걱정, 기고만장 등의 생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은 그러한 것들을 인위적으로 의면하지 않고 단지 함께 하는 것일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변화는 저절

어 있다.

조코 벡의 사상은 그녀의 제자들과 함께 설립한 ‘평상심(Ordinary Mind) 선원의 명칭과 설립목표에 잘 나타나 있다. 마조선에서 평상심(平常心)은 불심(佛心) 즉 깨달은 자의 마음을 나타낸다.

마조선사는 평상심을 ‘조작, 시비, 취사, 분별이 없는’ 평등심이라고 했다. “도는 뒤를 필요가 없다. 다만 오 염되지만 말라. 생사심을 갖고 조작하고 추구하는 것이 모두 오염이다”는 말과 맥락이 닿아있다. 그녀가 선원의 이름을 ‘평상심’으로 한 것은 좌선 위주의 인위적인 수행보다는 생활 속에서 평상심을 실현하는 생활선을 구현 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미국 평상심선원을 이끄는 조코 벡 박사.

“깨어있는 길”

을 추구하는 평상심선원은 다른 선원이나 사찰처럼 공식적인 입회식이나 수계식을 갖지 않는다. 다른 종파의 수행자나 출가, 재가자를 따지지 않는다. 그녀에 따르면 ‘깨어있는 길’은 보편적이다. 깨달음의 방법은 경계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평상심선원의 제자들

공식적 입회식, 종파, 출·재가 분별없어

지속적 점검, 가르침 통해 일상경계 옹호

로 이어집니다.”(‘생활선’ 중에서) <살아있는 선>에서 조코 벡은 우리가 집착하는 관념과 실재로부터 어떻게 마음이 우리를 분리시키는지를 매우 독특하게 분석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녀는 나쁜 정신적 습관들을 개선해 좋은 것으로 대체하는 대신, 우리의 미망과 정신적 상태를 통찰해 우리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버리게 한다.

“깨달음은 당신이 성취하는 그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무엇이 없거나 사라진 상태일 뿐이다.” 그녀의 말은 정통 조사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철저한 자비심이 깃들

은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 깨달음에 접근하고, 수행의 진척을 도와줄 나뭇의 체계를 만들기도 한다. 정진중인 제자들에게 스승들은 수행의 개방성과 유연함을 보이면서 생활 속에서 절대 지해가 드러나도록 돕는다.

이 선원의 특징은 지속적인 점검과 효과적인 가르침을 통한 수행의 진보를 가져다줌으로써 생활의 모든 면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평상심선원은 이러한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혜와 자비심, 이타행이 드러나도록 힘을 목적으로 한다. (계속)

김재경 기자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찢기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 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병체 산후바람 냉습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한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족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고혈압·순환기질환

진정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 혈관속에 만병이 있습니다※

◆ 혈전(血栓)이란

혈관내에 생기는 단백질의 피브린을 주성분으로 형성된 젤(gel) 상태의 혈액 덩어리로서 혈액의 흐름을 막아시키고, 각종 질병(성인병)을 유발시킴.

◆ 혈전성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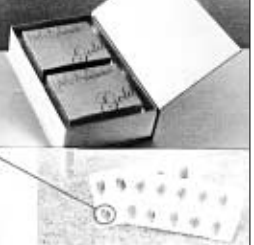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중풍), 노인성치매, 당뇨병성망막색소증, 손발저림, 눈이 침침함 등

◆ 혈전용해효소 [나토킨아제]

대두의 발효중 미생물(납두균)이 만들어 내는 신기능성 특수 효소물질(Nattokinase) (강력한 혈전용해 능력으로 순환기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탁월한 기능성 효소물질)

◆ 국제혈전용해학회

에 발표(1996년), 분자구조식이 규명되어 그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됨(일본 생물과학 연구소)



-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늘어나는 순환기질환
- 식생활 습관의 서구화 가공식품, 동물성지방 스트레스, 운동부족 환경오염

대건메디칼 053-744-2502 011-811-3938 (약식행심) (연·내·핵자를 보내드립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에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소리공양 실적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시설 설치. 1500여 사찰에 무선 마이크 및 각종 마이크 공급.



- ◆ 소리공양 종목 ◆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 고성능 무선마이크
- ▷ 각종 마이크 판매
-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당신에게 행운을



행운의 양말, 방석, 속옷, 손수건, 벤틀리, 지갑, 차량안전운행 방석, 부부화합의 이불, 가정화목의 카펫, 맑은정신의 베개, 학업자에게 지혜의 선물로... 사업자에게 성취의 선물로... 수험생에게 합격의 선물로... 부모님에게 효도의 선물로... 어려움에게 희망의 선물로... 모든이에게 행운의 선물로... 전국지사 대리점

천릉정사 복지원 문의: (053)986-1355, 017-533-1356 Fax (053)986-1356 대구 불로동 매점 (053)986-1354 부산·경남총판 (051)441-1670 www.bu.juk.shop.com